

與 잼버리 전 정부 책임론에 이낙연 “절망적일 만큼 한심”

〈전 국무총리〉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후 9개월 만에 평창올림픽 치러 평창올림픽·카타르월드컵 연구했으면 국가망신 피했을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전 국무총리가 7일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부실 진행 논란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문재인 전 정부 책임론을 제기한 데 대해 “절망적일 만큼 한심하다”고 직격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터지면 전임 정부 탓으로 돌리는 정부여당도 이번 만큼은 그러지 못하리라 짐작했으나 내 짐작은 빗나갔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평창동계올림픽을 준비했던 일화를 언급하며 “평창올림픽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9개월, 내각 구성 후 8개월 만에 열렸다. 우리는 전 임 정부를 탓할 시간도 없었고, 탓하



지도 않았다”고 적었다.

그는 “혹한 속에서 성공한 평창동계올림픽을 떠올린다”며 “내가 총리로 부임한 2017년 5월31일 이후 늘 긴장하며 평창올림픽을 챙겼던 일이 떠오른다”고 회상했다.

그는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모의를 멎게 하고, 북한 선수단 참가를 유도해, 올림픽을 평화롭게 여는 일에 몰두했다”며 “평창에서 벌어질 모든 일은 내각의 몫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특히 혹한 대처, 개막식 성공 조류인 플루엔자(AI) 증식이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의 겨울 한 철에 3천만 마리 이상의 닭과 오리들 살처분했던 시를 우리는 빠르게 잡았다”며 “평창올림픽 이후 일정 기간을 거쳐 살처분 제로로 2년8개월 동안 유지했다”고 성과를 부각했다.

또 “혹한이 가장 큰 격정이었다”며 “경기장에 방풍막을, 객석 곳곳에 히터를 설치하고, 자리마다 담요와 방석을 제공해 추위를 이겨냈다. 개막식 밤은 영하 8도였다”고 했다.

개막식 내용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 끝에 성공적으로 치러졌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그러면서 “이번에는 시간도 넘겼다”며 “혹한 속의 평창동계올림픽, 폭염 속의 2022년 카타르 월드컵만 연구해도 국가망신은 피했을 것”이라고 일침했다. /뉴시스

도의회 “잼버리 철수 안타까워”

“세계스카우트연맹·조직위, 가능 인원 전북에 분산해야”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가 태풍으로 인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에 수도권 철수 결정이 난 7일 오후 “배우 안타깝다”며 잼버리는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고 했다.

도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새만금 잼버리는 대회 초반 폭염 등으로 문제점을 드러냈지만 정부와 기업, 기관·단체, 국민이 한 마음으로 문제해결에

동참했고, 현장의 대원들도 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다”면서 “이제부터라도 대원들이 새만금잼버리에서 세계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태풍으로 잼버리가 새만금에서 마무리되지 못해 마음이 크게 아프다”고 했다.

이어 “참가자들의 안전 확보가 최우

선이지만 전북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전북에 남아야 한다”라며 “도내 대학과 기관에 활용가능한 시설이 있고, 다양한 체험 및 문화관광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는 “잼버리 참가자 중 가능한 인원은 전북에 분산해줄 것을 세계스카우트연맹과 조직위원회에 촉구한다”며 “전북도도 참가자들이 전북에서 새만금잼버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시급히 대책을 강구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끝까지 새만금잼버리와 참가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도민에게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청소년을 위한 여름방학 선물

CINEMA FANTASY

2023. 8. 19(토) 3:00pm

문화공간 이룸 ART SPACE

주최·주관 | 전주지역문화재단
후원 | 전주지역문화재단 후원회
티켓 | 전석 1만원 |
예매 | (8시에 예약) '청소년을 위한 판타지 사파리' 장석 - 03 - 0
문의 | 063)223-5323
카카오채널 '문화공간이룸'

본 행사를 위한 Cinema Fantasy는 (주)전주지역문화재단 2023년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입니다.



잼버리 참가 대원 비상대피 계획 발표 7일 오후 부안 새만금 잼버리 프레젠테이션에서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태풍으로 인한 잼버리 참가 대원들의 비상대피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잼버리 예산 '1171억' 용처 논란... 조직위 "운영비 7.2%"

조직위 인건·운영비 84억원 '과도 편성' 비판
야영장 395억, 화장실 등 시설 설치 130억원
정치권서 조사 필요성 제기... 향후 공방 가열될 듯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세계 잼버리) 준비 명목으로 무더기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예산이 부적절하게 쓰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야영장 조성이 적은 예산을 투입한 것이 잼버리 파행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7일 오후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2020년 조직위 출범 이후 잼버리 대회 사업비로 총 1171억원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이 중 조직위가 870억원, 전북도가 265억원, 부안군이 36억원을 각각 썼다.

조직위가 공개한 예산 배정 내역을 보면 인건·운영비로 쓰인 예산은 총 84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7.2%에 그친다. 인건비 55억원, 운영비 29억원이다.

야영장 조성비로는 395억원이 쓰였다. 이 중 265억원이 대회장 조성 및 강제배수시설 설치 등에 배정됐다. 화장실·사위장·급수대 등 숙영편의시

설 설치 및 침수 대비 배설 포장 등에는 130억원이 집행됐다.

또 참가자 급식 및 운영요원 식당 운영에 121억원, 과정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63억원, 텐트·매트·취사용품 구입 59억원, 개·패영식과 문화교류의 날 등 공연 이벤트에 45억원, 회원국 항공비 지원 비용에 45억원 등이 쓰였다.

조직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조직위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잼버리 시설비 및 행사 사업비로 집행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잼버리 예산의 사용처가 의심되며 조사 필요성을 제기해 향후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민주 혁신위 '대의원제 폐지' 가닥에 친명·비명 간 대립 양상

비명계 “특정 지역 의사결정권 극도로 제약”
친명계 “1인 1표, 무슨 명분으로 반대하나”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대의원제 폐지에 준하는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친이재명계’에선 찬성 의견을 ‘비이재명계’에선 반대 의견을 드러내면서 혁신안이 발표되기 전부터 계파간 대립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혁신위는 8일 전당대회 과정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비중을 일대일로 맞춰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는 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민주당 전당대회는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 비율로 선거를 치른다. 그러나 권리당원 숫자는 100만명에 육박하는 데 비해 대의원의 수는 1만6000명 수준이기 때문에 대의원이 과대표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당내에서는 대의원 숫자를 늘려 ‘대의원 1표’의 비중을 낮추는 등의 방안이 제시됐지만 혁신위는 친이재명계에서 주장해온 ‘대의원제 사실상 폐지’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를 두고 친명계와 비명계의 반응이 엇갈렸다.

비명계인 박광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권리당원들만으로 중요한 당의 의사 결정을 할 경우 특정 지역의 의사결정권이 극도로 왜소해지고 위축되고 제약된다. 그런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대의원제를 도입해 각 지역위원회에 대의원을 두게 한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권리당원 한 표와 대의원 한 표의 등가성이 과거에 비해

많이 약화됐다. 권리당원의 결정권이 약화됐다는 문제의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대의원의 수를 늘리면 된다”며 “혁신위가 안을 낼 경우 당에서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친명계인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이 주인되는 정당은 현 지도부의 공약이고 그 핵심이 대의원제 폐지”라며 “누구나 1인 1표” 이걸 무슨 명분으로 반대할 수 있냐. 대의원제 폐지가 답”이라고 밝혔다.

계파간 이견은 7일에도 연일 이어지고 있다.

비명계인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오는 8일 발표한다는 추가 혁신안에 대해 갑갑하다. 심지어 혁신위 자체에서도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며 “예상되는 내용들도 지금 지도부의 유희물에 맞춘 내용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자초한 논란으로 권위를 잃은 혁신위는 그 누구에게도 윤리와 혁신을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처했다”며 “혁신위는 남에게 혁신을 요구하기 전에 본인들부터 이 지경에 이른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간판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친명계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혁신하자고 해놓고 마음을 닫고 비난만 하는 태도를 먼저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혁신위는 7일 혁신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논의한 뒤 8일 혁신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



장수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장수군의회(의장 장정복)는 최근 상임위원회실에서 의원연구단체가 추진한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장수형특례발전연구회(대표의원 김광훈 의원)가 추진한 전북특별법시행에 따른 장수군 대응 방안 연구용역 및 장수군축산환경개선연구회(대표의원 김남수 의원)가 추진한 장수군 축산시설 악취저감을 위한 살체조사 연구용역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장수형특례발전연구회는 전북특별법시행에 따른 장수군 대응 방안에 대하여 시행 예정인 특별법에 대한 조문 분석과 더불어 장수군 대응 방안으로 장수군 농생명 지구 지정, 장수군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적극 추진 등을 제시했다.

장수군축산환경개선연구회는 무인악취 측정기 설치, 바이오필터 및 바이오커튼 시스템, 액비순환 시스템 등 축산시설 악취저감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연구단체 대표의원인 김광훈 의원과 김남수 의원은 “의원 연구단체에서 4개월 간 열심히 노력하여 군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기자